

## 몸과 마음의 조화 추구하는 ‘방어적 반사작용’

철학적 의미에서 웃음이란 무엇인가...

“웃음은 인간 존엄의 증표다”

홍경실 | 고려대 강사

“베르그송의 모든 사상은 언제나 기계적인 것과 관계하는 정신적인 것으로서 일관되게 생명체에 접근한다. 우리들은 왜 웃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도 예외없이 이런 접근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인간 생명체를 넘어서는 사회 생명체, 즉 사회적인 삶을 통해 웃음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 웃음에 대한 그의 탁월한 성찰이다.”

우리네 삶은 긴장과 이완, 주의집중과 방심 또는 관심과 무관심의 시계추 사이에서 연주되고 있는 변주곡과도 같다. 삶의 가장 커다란 이야깃거리인 사랑조차 증오의 얼굴을 숨기고 있듯이 낮과 밤, 만남과 헤어짐, 남자와 여자, 파스함과 차가움 등 이루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모습들이 서로 뒤엉켜 삶을 노래하고 있는 법이다.

### 사회적 삶 통해 웃음의 의미 물어

두어살 전후의 아이를 키워본 어머니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장과 이완의 연속인지 실감할 수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방안 여기저기에 싸대는 아이의 분노나, 집 밖에만 나서면 방향을 잃고는 대책 없이 넘어질러대는 아이의 발걸음은 정말이지 어머니에게 숨 쉴 만큼의 여유조차 빼앗아가곤 한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는 새근새근 잠에 빠져들고 오래도록 잠을 자주는(?) 일이 마치 어머니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몸짓이더라도 한 듯 그 자그마한 입가에 미소까지 머금고 있다. 바로 조금 전에 그렇게 숨이 넘어갈 듯 허둥지둥 바꿨던 몸놀림이 이제는 체법 여유를 되찾는다. 여전히 필요로 하는 손길은 산더미 같지만 말이다.

프랑스의 현대철학자 앙리 베르그송(1859~1941)은 시간의 흐름처럼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신만의 개체성을 전개시켜가는 것이 생명체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불가역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데, 여기에도 예외없이 또 다른 야누스적인 얼굴이 몸을 도사리게 된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비아냥거리더라도 하듯 생성과정을 가로막아서는 온갖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네 삶에는 늘 함께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베르그송은 이런 그림자를 물질적이며 기계적인 것, 가역적이면서 반복적인 것으로 이해했고, 경직되고 완고하면서도 융통성을 모르는 고루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마음먹은 대로 아프지 않거나 죽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베르그송의 모든 사상은 언제나 기계적인 것과 관계하는 정신적인 것으로서 일관되게 생명체에 접근한다. 우리들은 왜 웃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도 예외없이 이런 접근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인간 생명체를 넘어서는 사회 생명체, 즉 사회적인 삶을 통해 웃음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 웃음에 대한 그의 탁월한 성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경직된 사회 메커니즘 깨는 웃음

사회가 그 구성원들 사이의 마찰이나 일탈행위를 경계하면서 최대한 유연성과 사회성을 얻어내고자 할 때, 지나치리만큼 융통성이 없는 틀에 박힌 관습이나 기계처럼 빈틈없이 완전무결한(?) 그 메커니즘 앞에서, 이 모든 경직된 것들을 없애고자 하는 징벌이 다름 아닌 웃음이라고 베르그송은 이야기한다. 웃음은 결국 사회라는 거시적이고 유기적인 생명체가 반사회적인 행위를 경계하면서 취하는 일종의 ‘방어적 반사작용’ 과도 같다. 때문에 베르그송에게 웃음이란 사회적 기능을 띠고 있는 중요한 행위인 셈이다.

살다 보면 우리들은 흔히 무언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맞부딪치곤 한다. 열심히 시간을 투자한 결과가 단시간에 요행으로 얻은 투기에 비교될 때, 제판에는 한껏 공들여 준비한 잔칫상이 누구에게라도 그저 그런 상차림으로 보여질 때처럼 많은 세상

일들이 우리들의 기대에 부합하지만은 않는 것이다.

학문 후속세대의 대책없는 기대감에서 오는 쓴웃음이나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되뇌면서 자조적인 웃음으로밖에는 달랠 길이 없는 세상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개개인의 생명에서 그 진행과정을 가로막는 기계적인 것으로서 우리는 육체를 생각해볼 수 있다. 육체의 근육이 경직되고 온몸의 생리적인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때, 그래서 마치 피의 흐름을 거부당한 자동인형이라도 된 듯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우스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생명체가 그 생각과 마음을 도둑맞았다고 한다면, 인간이 기계처럼 타율적으로만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또한 분명 우스꽝스런 일일 것이다.

### 몸의 움직임과 마음가짐의 조화 강조

이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주의주장만을 융통성 없이 고집하면서 마치 조금 건드리기라도 하면 휘어부러져나갈 대나무 같은 고집불통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웃음을 자아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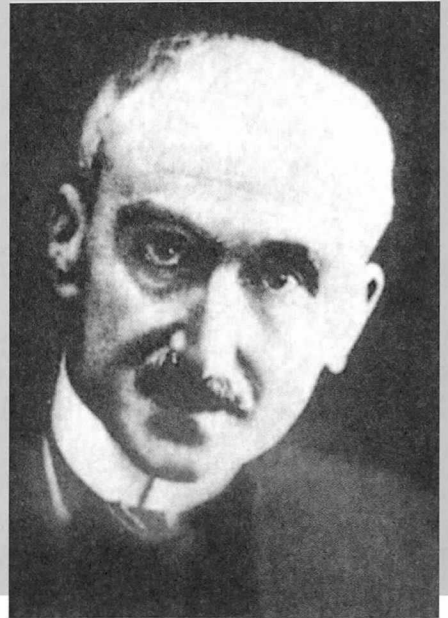
이 두가지 경우를 통해 우리는 마음과 몸의 조화, 정신성과 물질성의 조화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화가 깨질 때 이런 부조화를 경계하면서 웃음은 예외없이 우리의 안전근육을 뚫고 나온다.

베르그송의 생활 좌우명 가운데 "사색인으로서 행동하고 행동인으로서 생각한다"는 글귀가 있다. 우리들 일상생활의 진부함이 또는 거대한 사회조직의 경직성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런 삶의 자세를 허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이 글귀는 곧 몸의 움직임과 마음가짐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조화가 깨지게 될 때, 마치 급한 불 일로 몸에 맞지도 않은 남의 옷을 빌려 입고 길을 나선 사람처럼 우리들은 우스꽝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주위의 시선이나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편집증적인 행동 또한 몸과 마음의 조화를 깨뜨리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주위를 의식하지 않은 채 몸을 건사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 또한 생명의 조화를 나 몰라라 하는 태도인 셈이다.

얼마 전 한 강의실에서 출석을 확인하다 일어난 일이다. 마치 때 이른 단풍인 양 한 학생의 머리가 새빨강계 물든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다음 번 출석 때 나는 다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빨간 머리는 섯노란 코팅 머리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학생 맞나요?" 이내 강의실은 웃음바다가 됐다.

정력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나서는 50, 60대 남성들의 작태나 50, 60대의 얼굴을 30, 40대로 되돌려준다고 해서 보톡스 주사를 맞는 사람들, 이런 삶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나는 배꼽을 쥐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저 생명의 진행을 가로막으면서 50, 60대의 몸을 30대로 바꾸길 꿈꿀 수 있단 말인지...



'창조적 진화론'을 설파한 베르그송은 웃음의 철학자로도 유명하다. 베르그송에게 웃음은 경직된 사회적 메커니즘을 깨는 역동적 힘이다. 사진은 베르그송의 모습.

### 웃음과 인간의 존엄성

아름다움과 예술이 일상생활의 화두로 활개치고 있는 요즘의 문화, 인물지상주의나 육체의 물질적인 관능미가 이데올로기 아닌 이데올로기로서 젊음을 경직시키는 21세기 초두에 베르그송이 되살아난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줄 것인가. 아름다움과 우스꽝스러움을 혼동하는 어리석음으로 생명의 에너지를 탕진하지 말라고 혹독하게 질책하지나 않을지 의심스럽다.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의 의상으로 자신의 몸뚱어리를 감추고 있을지언정 굳이 웃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가 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에 이보다 더 위협적인 사실은 없을 것이다.

유난히 인간에게서 그 빛을 발하는 정신이 인간을 웃음의 동물로 만든 힘이라고 여기면서 새삼스러운 이야기지만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자.

굳이 거창한 이론이나 주의주장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 노쇠해져가는 우리 육체의 기계적인 움직임과 그런 동력을 잃어감에 따라 서서히 현실에 대한 유연한 적응능력이 사라져가고, 그런 가운데 정신(에스프리)의 향기 그윽한 곳에서 안면근육의 그 경직된 살갓을 뚫고 입가로 뿜어져나오는 웃음의 향기!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인간은 단순히 육체와 현실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과연 지나친 낙관일까? ●